

농경제사회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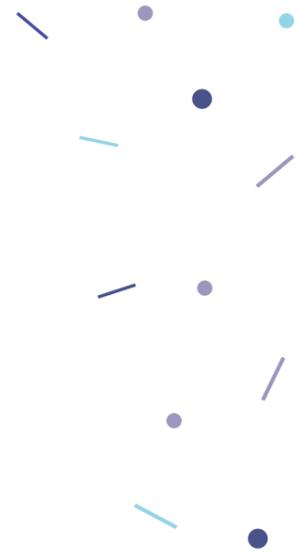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농업자원경제학전공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지역정보학전공

Regional Information Studies





권오상 교수님

Q: 연구실의 연구 분야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자원, 환경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후 변화,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탄소 저감 정책, 식품 안정성 관련 연구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가장 큰 연구는 R&D하고 생산성 관련 연구인데요. 특히 농업 관련해서는 우리 연구실에서 계속 주도해오고 있어요.

Q: 최근의 연구 사례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올해 저희가 발간하는 논문에 축산 관련 논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축산업 비중이 매우 커요. 사료를 외국에서 지속해서 들여와서 소비하기 때문에, 자연에 양분형태로 배출되어 수질오염원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조금 더 합리적인 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농업부문 양분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면 그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효과가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연구를 했어요. 또 하나는 저희 석사학위 학생 논문인데요. 쓰레기봉투가 플라스틱이다 보니 정부는 물건 이동용, 포장용 봉투 사용을 규제하려고 해요. 그럼 그게 실제로 규제가 됐을 때 소비자들이 이 봉투를 선택하는 행위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전체 비닐봉지의 소비량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계량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화석 연료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해요. 발전소별로, 발전 유형별로 탄소를 줄이는 데 드는 단위당 비용, 한계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기후 변화가 저희 연구실에서 굉장히 오래 연구된 주제 중 하나인데 사람은 물론 동식물도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거든요. 저희가 산림자원 전공자는 아니지만, 꽤 오래 진행한 연구 중 각 지역별로 침엽수하고 활엽수, 이런 수종별 분포가 기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나무들도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는데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도 당연히 적응을 하겠죠? 생산자들이 기후 조건이 바뀌면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농업이라 하면 어떤 품목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을 하고 지역별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같은 다양한 조건에 따른 결과들을 경제 모형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Q: 기후 변화나 자원 그리고 환경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연구 기법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A: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분석을 하고요. 또 관심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엄격하게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량경제학적인, 통계학적인 분석 수단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후 변화나 정부 정책과 같은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경제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제모형을 구축해 분석해요.

Q: 이 연구실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일단 저희 연구실은 아주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한 그런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자랑이자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능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 관악산 등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좀 사소하지만 특이한데, 저희만의 연구실 달력을 만들어요. 누가 졸업을 했다가나 외국 학술 대회에 참가를 했을 때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큰 사이즈의 한 장짜리 달력을 만들어 다 같이 나눠 갖기도 하는 등 사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Q: 연구실의 최근 졸업생들이 어디로 진출했는지 소개해 주세요.

A: 사실 진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석사를 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학생들도 많아요. 국

가연구기관이나 기업체를 가기도 하고요. 연구기관에는 구체적으로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 있겠네요. 다수는 박사 과정을 밟긴 해요. 외국으로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상당수는 돌아와서 저명한 국내 대학의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에서 계속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Q: 학부생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가져야 할 역량이나 마음가짐, 태도가 있을까요?

A: 우리 학교 학생들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역량은 의심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대학원에 오면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지표가 있어요. 수업에서 받는 학점이나 지도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발표하는 논문 같은 그런 지표를 통해 만족을 느끼기도 하는데, 동시에 대학원 수업은 본인 스스로가 정한 어떤 단계와 일종의 성취, 이를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 발전을 확인하고 거기서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문에 대해 스스로가 부여하는 관심과 열정 같은 거죠. 이걸 바탕으로 과정을 꾸준히 밟으면 취업이나 사회적 인정 같은 외부적인 조건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동환 교수님

Q: 연구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농업과 국민경제의 연계와 관련한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지출액 중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합니다. 또한, 식품 산업에 대한 수요 변화가 생기면 농업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농업 생산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연구도 우리 연구실의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특히 현장 연구의 한 형태인 '논두렁 연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는 직접 현장에 계신 농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동안 삼척, 남해, 양평, 울진 등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 계획과 그에 대응한 지자체의 정책 대안을 찾는 연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달라진 여건에 대응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새로운 작물의 발굴이나 지역 농산물의 활용 및 유통 전략 등을 찾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정책 연구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현재 농지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 시에 발생할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령, 습기가 많은 논에 배수 인프라 구축 시 타 작물 재배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 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죠. 또 여러 교수님들과 공동연구로 공익 직불제의 효과에 대한 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특히 공익적 직불제에 따른 농촌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만들어내고 발견하는 것은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농업 농촌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RND로 진행되는 연구가 있으며, 북한의 농업 농촌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남북한을 통합한 한반도농업SDGs 구

축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죠. 이를 위해 북한의 영화나 로동신문 등을 데이터로 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 다른 체제전환국들과의 비교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통합시대에 대비하여 어떠한 식으로 북한과의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해외농업개발이나 해외농업개발협력 관련 연구도 매우 중요하고 관심있는 분야입니다. 그 동안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르완다, 브룬디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태국을 사례로 하여 농민들이 어떻게 기술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저개발국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어떠한 농업 기술을 전달할 때, 효과적인 전달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도출해낼 수 있어요. 기술 개발 만큼이나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현지에서 어떤 농가가 정보나 기술 전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찾고, 이러한 선도농가를 통해 기술을 전달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Q: 연구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구 기법과 연구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A: 데이터 측면에서는, 주로 2차 통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농가조사자료나 농업총조사, 소비자의 식품소비관련 조사 등 통계청의 공식 통계, 한국의 행의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에서 배우는 이론과 모형이 활용됩니다. 또한 지역연구를 위해 공간데이터와 GIS 분석 도구의 사용도 필요로 합니다.

Q: 연구실만의 특별한 점을 소개해주세요.

A: 저희 연구실은 재미있어요. 학생들 서로의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서로의 연구주제

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2주에 한 번은 랩 미팅을 진행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되어있어요. 관악산 등산이나 저녁 회식도 자주 합니다. (웃음)

Q: 연구실을 졸업했을 때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나요?

A: 대부분은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거나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국책연구원, 경기연구원 같은 지역연구원으로 진출합니다.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 후 박사 과정을 계속 하기도 하고, 미국과 같은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농식품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이지바이오와 같은 농기업, 농업보험관련 금융기관, 롯데푸드와 같은 식품기업으로도 진출해나갑니다. 또 농촌으로 진출해 해당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밀키트를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 졸업생도 있어요.



유도일 교수님

Q: 연구실의 연구 목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연구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계량경제 분석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특히 농식품산업 분야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혁신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아요. 방법론적으로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계량경제 기법 등이고요. 전통적으로는 시계열이나 패널 등 정량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최근 추세는 비정형 데이터라 해서 음성이나 텍스트 등도 분석에 쓰이고 있어요. 저희 분야는 경제적 응용을 많이 하다 보니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위성,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등을 도입해서 경제 분야에 적용하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해요. 또한, 디지털 농식품경제라는 신분야를 정립하고 있어요. 보통은 배달 앱이나 푸드테크 등의 디지털 신산업 분야와 저희가 주로 해오던 전통적인 미시 및 계량경제학까지 포함해서 농업·자원 경제에서 데이터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술 혁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디지털 전환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을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Q: 연구 사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금 정부 정책이 디지털 농정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 연구 과제가 많지는 않는데 최근 완료한 연구로는 그린바이오 신산업 분야 정책 연구가 있어요.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레드, 화이트, 그린 바이오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레드, 화이트는 의약 및 제약, 화이트는 환경 및 에너지 분야, 그린은 농업 및 식품 분야에 해당돼요. 정부 차원에서 그린바이오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 관련 신산업 분야의 시장 규모를 산출하고 해당 산업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

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정부 과제를 수행했어요.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차후 농식품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디지털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과제를 수행 중이에요. 해당 과제는 정부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실제 농민, 농업, 농촌 부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고 있어요.

Q: 연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전통적으로는 cross section, 시계열, 패널 데이터 등에 계량경제 모형을 구축해서 분석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해요. 농업 생산 쪽에서는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라고 정부 차원에서 모든 농가가 등록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얻기가 개인 신상 보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져서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좀 이제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게 시계열 데이터들이에요. at유통공사 가격 데이터나 웹에서 크롤링한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를 구축해서 계량 모형을 분석하거나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최신 기법을 적용해서 모형 간 결과 비교나 시사점을 도출해요. 컴퓨터 공학하시는 분들이 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인문사회계열이다 보니, 개발된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농업 및 응용 경제 분야에서 사회과학과 연계된 경제·사회적 시사점, 즉 경제 현상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Q: 연구실을 졸업했을 때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나요?

A: 우리 전공 분야는 미시경제이론과 계량경제 분석이 중점을 이뤄요. 이론과 실증 분석을 통해 실

제 농식품산업 분야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기관에 많이 진출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소를 가장 많이 가는 편이고,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 각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에도 많이 진출해요. 석사 졸업 후 유학을 가서 해외 박사를 따는 사례도 많고요. 제 경우 석사를 마치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경제 파트의 위촉연구원을 하고 유학을 가서 해외 박사를 취득하고 왔어요. 이후에 민간 경제 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근무하다 충북대에 임용되었고, 이후에 모교로 오게 되었어요. SERI 외에 민간 경제 연구소로는 포스코(POSRI), LG, 현대 등에서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저희 전공 같은 경우는 거의 국립대만 있잖아요. 현재 사립대에는 고려대랑 단국대등 몇 군데 없는데 상대적으로 교수직의 세대 교체가 활발히 일어나는 편이에요. 일단 석사 및 박사 학위는 (따기 어려운) 자격증 같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진출하는 분야가 학사에 비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학부만 졸업했다면 학사 졸업자만 지원 가능한 직장을 갈 수밖에 없지만,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있으면 그 직종들을 포함해서 석박사 이상이 지원 가능한 직장까지 갈 수 있으므로 지원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요. 게다가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느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가치도 존중받는 편이고요.

Q: 학부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A: 우리 과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농생대 내 자연계 전공들에 비해 우리 전공이 대학원 진학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인문사회계의 경우 고시, 로스쿨, 금융계 등 진로가 워낙 다양한 편이라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 전공 대학원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부생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농업이 아무리 사양 산업이라는 편견

2003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경제학사
2005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경제학 석사
2012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epartment of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농업 및 응용경제학 박사
2005 - 2009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Food System Research Group, Research Assistant
2010 - 2011	USDA Forest Products Laboratory, Research Associate
2012 - 2013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013 - 2019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부교수

이 있어도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예요.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농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야 할 일이 많죠. 항상 후배들이나 학생들한테 하는 말인데 모두가 다 멋있는 걸 쫓기 보다는 약간 고개를 돌리고 꼭 그렇게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쨌든 국가에서도 경제·사회의 한 축으로 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립대나 정부 기관을 두고 있는 거고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정부 출연 연구소, 국가 기관, 각 지방정부 연구원 등에 농업뿐만 아니라, 자원, 환경, 식품, 지역, 개발 등등의 인재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원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 높인다면, 이에 적합한 인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물론 시장 논리에 따라서 대학원이라고 경쟁이 없는 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쪽 삶이 괜찮을 것 같은데', '대학원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기여할 부분이 있겠는데', 이런 걸 느끼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만큼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기여하는 것도 클 것이고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나보다는 남을 위한 삶, 모두가 다 주연일 수는 없지만 조연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남이 뭐라 하든 우직하게 자기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 큰 성취감을 얻게 되는 건 만고의 진리 같아요.

또 교수님들을 많이 찾아가서 얘기를 많이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학부 시절에는 자기 주변 친구들, 1~2년 선후배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그 시야가 좁을 수 있어요. 보다 폭넓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려면 해당 분야에서 그래도 몇 년이라도 더 경험해 본 인생 선배들의 얘기가 값질 때가 많아요. 저도 학부 시절엔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 학부생 때 교수님들 방문을 많이 두드려보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교수님들과 더 일찍, 더 많이 얘기를 나누었다라면 시간 낭비도 많이 줄이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지레 겁먹지 말고 방문이 열려있으면 무작정 들어가서 교수님과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이종욱 교수님

Q: 연구실의 연구 목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연구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중·저소득 국가의 어린이, 노약자 혹은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개발경제학 연구를 중심으로, 여러 국제 개발 프로젝트, 효과성평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Q: 연구 사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베트남 북부 산악지역의 소수민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농업 및 관광업 직업 교육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약 2,000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가구 소득, 삶의 질, 그리고 소수민족 여성의 가구내 지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은행이 베트남 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교육 시스템 개혁 프로젝트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6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어요. 또 말라위에서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안과 검진과 백내장 수술을 제공했을 때 그분들의 삶의 질, 건강, 그리고 가구 소득 등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제 보건 프로젝트의 효과를 건강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계층별로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대 부임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원조 사업으로 지원을 한 여러 농림수산업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들, 특히 농림비즈니스 분야의 여러 파트너십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평가 연구 프로젝트들이 있구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농림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개발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도 기여를 하고 싶어요. 또한, 글로벌

개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베트남 농업 환경 변화 예측과 정책적 제언, 그리고 베트남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효과 및 적응 조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곧 시작하려고 해요.

Q: 해당 연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나 실험, 그리고 사용 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국제개발협력사업 그리고 개발경제학 연구의 특성상 중·저소득국가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코로나로 해외 연구 활동에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연구를 위해 해외의 연구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구요. 무작위비교연구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등의 사회적 실험연구 방법이나 준실험적/비실험적 효과성평가 방법론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인터뷰, 설문, 문헌, 통계 자료 등을 기반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하게 돼요. 주로 계량경제학, 특히 효과성평가 방법론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효과성평가 방법론은 넓게는 어떤 선택, 좁게는 특정 정책이나 프로젝트 효과의 인과성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상관관계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과효과를 분석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이나 정부정책들이 실제 수혜자들의 삶에 어떤 인과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Q: 교수님 연구실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나요?

A: 저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노력해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학생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연구실을 졸업했을 때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나요? 진출 기관 및 기업의 방향이나 최근 졸업생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A: 개발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크게 학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현장으로 나간다면 KOICA나 유니세프, UNDP, 세계식량기구 같은 정부 및 비정부 국제기구, NGO 등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반기업체에서도 ESG나 사회공헌사업도 많이 하고 NGO에서 국제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농촌경제연구원라든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여러 연구소들에서 국제개발 프로젝트 관련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서 연구원으로도 갈 수 있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외부에서 보여지는 멋있어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국제개발협력이나 개발경제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전공을 하시든지 밝은 면만 보시고 전공 결정을 하시기 전에, 그 이면의 가려져 있는 모습도 함께 보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국제개발협력이나 개발경제학의 경우 겉으로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글로벌한 모습이나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빈곤,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등의 밝은 모습 외에 그 이면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을 단순히 불쌍하고 내가 돕는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했으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더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며 나와 함께 사는 나의 이웃으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농경제사회학부가 아닌데 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있는 사

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도 된다고 이야기 해요. 저는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이라는 틀 안에 자기를 가두고 그 이외의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내 전공 지식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더 많은 영역에 접목시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 학부 전공은 인류학이에요. 미국에서 다시 학부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이중 전공하고, 석사로 통계학을 하고, 그리고 박사는 응용경제학을 했죠. 그래서 제 아내는 저에게 농담으로 학위 수집가나 놀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학도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 개발경제학도 사람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같은 사람이라는 대상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했다는 게 저는 참 좋았어요. 수학이나 통계학 역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틀과 기반을 제공해 주었고요. 저는 학부생들이 '자기 전공만 공부해야 한다'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그 틀을 깨고 '내 전공을 기반으로 다른 여러 전공 혹은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융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임정빈 교수님

Q: 연구실의 연구 목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연구실은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이슈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식품 산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탐구합니다. 특히 WTO와 FTA 등 무역자유화가 농식품 산업과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지요. 농식품 정책이란 우리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1995년 WTO 출범과 2000년대 들어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 이후에 농업부문도 시장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농업통상 정책이라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농식품 산업관련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와 함께 효과적인 농업부문의 통상전략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농업부문 특성상 비농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유용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농업정책과 농업통상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가는 것도 저희 연구실의 중요한 연구 주제지요.

Q: 연구 사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정책과 농작물 보험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공익형 직불제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농업통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농산물 관세체계, 관세할당제, 수출지

원정책, 동식물검역 (SPS) 제도 등을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가공식품의 지리적 표시제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가당 경지면적이 적고, 토지용역비와 노동비가 높기 때문에 농가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국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농업성장을 견인해 줄 기능성 식품, 천연물 화장품, 생물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을 연구하기도 해요. 농산물을 원료나 소재로 사용하는 그린바이오 농생명산업이 발전해야 우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비싸게 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분야도 매우 다양한데, 바이오 장기연구도 언뜻 의료 분야처럼 보이지만 출발이 미니돼지 등 동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속해요. 임산물로부터 나오는 향료산업, 반려동물과 관련된 펫푸드, 건강과 관련된 메디푸드 등도 여기에 속하고요. 이런 고부가가치를 가진 바이오 산업이 발달을 해야 농산물의 수요가 올라서 가격이 오르고 농민들의 소득이 늘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 농업의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새로운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국내외 소비자들이 국산 농식품을 자발적으로 소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교육을 농업과 연계하여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국내 소비자와 국민에게 환경, 생태, 경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 행동을 유도해 나가는 식생활교육은 소비농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무조건 “국산이 좋아요! 먹으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어릴 때부터 생태,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교육을 해서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관협력으로 푸드마일리지제, 탄소발자국, 로컬푸드, 푸드플랜 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 활발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최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Q: 연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연구 자료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정부나 국내외 기관이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에 입각한 계량 경제학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농식품정책이나 통상정책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책 수단별 가격, 소비, 생산, 무역 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이해당사자들의 후생변화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통계자료와 계량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방법론 상으로는 부분균형분석 방식도 있고, 일반 균형 방식도 있는데, 분석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지요. 분석 방법 관련 툴로는 통계 패키지를 돌리는 것도 있고 엑셀로 간단히 할 수 있기도 하고 산업 연관 분석도 할 수 있어요. 선진국, 외국의 정부 문서나 보고서, 기존 연구를 비교 분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그 연구 주제에 맞게 적용하기도 해요.

Q: 연구 관련 외부 활동이나 답사도 하시나요?

A: 최근 수입대체 국내 유망 생산 품목 연구차원에서 강원도 평창지역을 대학원생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국내 유명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당귀가 평창 진부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 회사가 제조하는 기능성 식품으로 히트를 친 상품이 애터미 헤모힘이라고 하는데 주성분이 당귀, 천궁, 백작약이에요. 헤모힘이 지금 약 8천억 정도 팔려요. 수출도 많이 하고요. 우리는 이런 유망 품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입이 많이 되는 농산물이 쓰이는 부분을 찾아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지 경제 분석을 하고, 농가수용성과 생산기술 분석은 농생대 작물생명공학 다른 교수님 연구실과 협업해서 진행해요. 그 유망 품목을 추천하고 발굴하는 데에 있어 현장을 다녀요.

1989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경제학사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1999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농업 및 자원 경제학 박사
2015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연구 위원
2018 -	한국4H 청소년문화연구소장
2018 -	차세대 농업경영인대상 심사위원장
2019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평 가위원
202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농업 인 의무교육 자문관

Q: 교수님 연구실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나요?

A: 제 연구실의 대학원생들 나이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현재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10명 정도 되고, 석사과정은 4명 정도 되는데, 박사과정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니 그것이 이유인가 봐요. 또 논문자격시험 등 학사관리가 철저해서 대학원 과정에 공무원들이 잘 안 오는 반면, 저희는 고위 공무원도 3명 파트타임 대학원생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은 맛집을 많이 가요.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맛집잘알' 연구실이에요.

Q: 최근 졸업생들은 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셨나요?

A: 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국책연구소로 진출하거나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또 정책은 법으로 규정이 돼야 하는 거라 법과도 관련성이 있다 보니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곳을 가기도 해요. 민간 연구원 쪽도 물론 가고요. 연구 관련 국회나 정부 연구소를 가장 많이 간다고 할 수 있겠네요.



김의준 교수님

Q: 전반적인 연구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첫 번째로 주택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2018년 이후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고 가격도 상승했어요. 일부 자료는 3년간 54% 정도 지대가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주택 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부가 세금을 통해 주택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택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북한 연구가 있어요. 통상 말하는 경제 협력 사업들, 도로 철도 사업들이 시행될 경우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통일비용이 200조 원에서 700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경험 사업을 통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방 소멸 관련 연구가 있어요. 지방이 없어지고 쇠락하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204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약 3/4이 없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 왜 생기고 있고 어떤 지역이 정말 위험한지 그리고 지방 소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요.

Q: 연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나 실험, 사용 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도시 및 지역 경제 분야에서는 공간 경제 모형과 공간 분석을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관심을 두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지역, 충격 시점에 따라 달라질 때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해석하는지를 탐구합

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 스타벅스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몰려 있어요. 서울대입구역에도 보면 스타벅스가 엄청나게 몰려 있고요. 반면에 이디야 같은 카페는 떨어져 있어요. 이처럼 몰려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스스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주변 어떤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죠. 또한 낙성대 주택 가격이 오르면 사당동 주택 가격이 영향을 받고, 이처럼 공간 경제 모형은 서로 지역 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서울이 성장하면 인천이 성장하고, 부산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을 해석할 수 없어요. 공간 계량 경제 모형을 통해 일반적인 성장이나 반응을 이해할 때 공간이라는 요소를 추가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쓰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 연구실만이 가지는 특별한 점이나 특징이 있을까요?

A: 먼저 저희가 가장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 중 하나로 2006년도부터 시작한 전국 규모의 “지역분석 여름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 없이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30명-40명 정도로 진행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150명이 참여하기도 했어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수요도 높고 전국의 연구자들 수요도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다국적 학생들로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Q: 연구실을 졸업했을 때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나요?

A: 국내외 대학의 박사과정으로 진입하여 공부를 더하거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지역과 국책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심화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Q: 학부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해주세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답도 못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들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글쓰기 연습을 해오셨겠지만 이건 평생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학교에 다니든, 직장에 다니든 보고서라는 것을 써야 해요. 자신의 의견을 글로써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글쓰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글을 아주 잘 쓰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최영찬 교수님

Q: 연구실의 연구 목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연구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연구실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최적의 농업경영 활동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 환경은 아주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농업 관련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전자 상거래와 같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농산물 유통 방식이 보편화된 것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농생대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은 스마트 농업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스마트 농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업 정보'와 '농업 정보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농산품의 생산부터 가공, 저장, 유통, 그리고 판매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농업 정보라고 해요. 저희는 IT 기술을 활용해 농업 정보의 패턴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농·축산업 경영 시스템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Q: 연구 사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농업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농가의 경영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을 비전으로 해서, 농산업을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연구를 수행해왔어요. 과거에 농가에서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는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효율적인 농업 경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을 도와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정책, 스마트 농정 지원 관련 정책을 기획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농가 경영에 필요한 IT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정책에 힘입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생산자들이 경영에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양돈생산 경영관리 프로그램인 '피그플랜(Pig Plan)'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그플랜은 양돈의 생산부터 출하까지의 내역을 전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피그플랜은 현재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양돈 농가의 비율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경영 정보가 축적되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육계생산 관리프로그램(Broiler Plan), 산란계생산 경영관리 프로그램(Egg Plan)을 포함 낙농, 채소, 과수, 버섯농가 프로그램등을 개발했어요.

효과적인 경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농업 정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시설 원예에서 식물의 생장이 최적화되는 온도와 습도, 토양의 구성, 물의 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에 해당돼요. 한편, 구제역과 같은 가축성 전염병은 축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 가축 관련 차량의 이동 패턴, 감염 지역과의 거리 등 다양한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여 가축 방역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농축산물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분석해서 많은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생산물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를 했어요. 오늘날에는 누구나 쉽게 가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보편화 되어있는데요, 이처럼 전자상거래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서비스 B2C(Business to Consumer) 방식의 보편화에 기여하기도 했어요.

Q: 연구실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A: 초기에는 경영정보학의 연구 분야 중에 '시스템 사이언스'라고 해서, 경영 데이터를 분석해서 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그리고 유통 및 판매에 적합한 시스템을 제작하는 시스템 설계 작업을 주로 했어요.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계학습 등의 방

법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최적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센서를 사용해 농가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 학습을 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해 알고리즘을 만드는 연구가 이에 해당해요.

Q: 연구실을 졸업했을 때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나요?

A: 스마트 농업에 대한 연구와 시스템 개발을 하는 연구기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농업 경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지농'이라는 기업에 우리 연구실 졸업생이 많이 있어요. 이외에 서울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대학과 국외 대학(미국)에 교수로 진출한 경우도 있어요. 졸업 후에 경영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농촌진흥청과 같은 국공립 연구기관, CJ를 비롯한 농식품 기업, 그리고 농장을 가꾸는 게임인 '레알팜'을 개발한 회사에 진출한 경우도 있어요.

Q: 교수님 연구실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을까요?

A: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경영 정보 학회에 참여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행되는 학회에 많이 참가한다는 점이 특별해요. WCCA(World Congress on Computers in Agriculture)가 한국에서 유치되었을 때 저희 연구실에서 학회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지원했어요.

1977 - 198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농촌지도전공 학사
1984 - 1989	Michigan State University M,A(Agricultural Economics)
1989 - 1991	Michigan State University Ph.D(Agricultural Economics)
2003 - 2004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초빙교수
1991. 6. - 10.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자문연구원
1991 - 1993	미국 노스다코다 주립대 전문연구원
2003 - 2004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초빙교수
1993. 8.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